

학교병원 유무에 따른 보건-의료계열 대학생의 임상실습 현황 및 만족도 조사

김수정¹, 김병곤², 박창희³, 박수정⁴, 전권일⁵, 김순구^{6*}

¹ 대구보건대학 임상병리과, ² 대구보건대학 물리치료과, ³ 대구보건대학 방사선과,
⁴ 대구보건대학 작업치료과, ⁵ 대구보건대학 학교기업병원지원팀, ⁶ 대구보건대학 간호과

A Study on Satisfaction Investigation and Current Status of Clinical Training Program for Healthcare-Affiliated Students Depends on University Hospital Availability

Su-Jung Kim¹, Byung-Kon Kim², Chang-Hee Park³, Su-Jong Park⁴, Geon-Il Jeon⁵, Soon-Gu Kim^{6*}

¹ Department of Biomedical laboratory science, Daegu Health College

²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Daegu Health College

³ Department of Radiology, Daegu Health College

⁴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Daegu Health College

⁵ Department of College Company Hospital Support, Daegu Health College

⁶ Department of Nursing, Daegu Health Colleg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clinical practice (clinical training education) and satisfaction depend on university hospital availability according to a survey with 850 healthcare-affiliated student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the SPSS17.0 program. The result was shown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s on gender, major departments and satisfaction of college life. In additio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atisfaction of clinical training education in the environmental aspects of practice depending on whether affiliated hospital or not. There were no significant correlation found between degree of satisfaction of clinical training education and the need for affiliated hospital ($r = .204, p < .01$). As a result, Attached to the university hospital can be helpful to healthcare-affiliated students on environmental and educational aspects of clinical training education. Therefore, the effective and practical training programs using university-affiliated hospitals are surely needed to develop and to apply the active support.

Key Words : University-Affiliated Hospital,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Students Department of Public Health and Nursing

* 본 연구는 대구보건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2011년)에 의해 연구되었음.

I. 서론

자연과학의 발달이 의학기술에 접목으로 의료기술은 급속히 발달하고 있으며, 보건-의료계열학과들은 최신 학문과 더불어 첨단의료기기를 다루는 법도 익혀야 한다. 이런 이유로 보건-의료계열학과들은 이론과 더불어 현장 실습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다. 국민의 질병 및 예방을 일선에서 담당하는 의사들조차도 현 수련병원과정의 보완책을 논하고 있으며 임상실무교육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1].

보건계열 중 물리치료학 전공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상실습교육에 대한 만족 정도를 조사한 결과 학생들은 임상실습에 대해 부정적이며 이론과 실습의 괴리로 인한 혼란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구체적인 불만족 예는 학교와 임상과의 차이점, 대인관계의 어려움, 환경에 대한 적응 등이라고 하였으며 환경적인 면에서는 임상실습 담당선생님에 대한 인간적 실망 등이 원인 이었다 [2].

이는 학교와 병원이 교육을 위한 연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며 임상실습 담당 선생들도 실습학생들에게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분석이다. 치위생 교육과정에서도 현장 임상실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실습교육을 통해 이론적 내용을 실습에 적용하고 대인관계기술 및 임상실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고 있다. 또한 실무 투입시 문제해결능력을 기르고, 임상실습 지도자의 능력에 따른 실습효과를 분석한 연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3].

보건계열학과에서는 최신기자재의 도입이 임상현장처럼 원활하지 못한 점과 이론과 실습을 연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임상실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현장실습 운영방안으로 현실변화에 맞게 실습기간 연장과 임상 현실을 감안한 실험실습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였다[4]. 또한,

병원 전단계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응급구조사들은 긴박한 응급 구조현장에서 환자에게 응급의료서비스를 좀 더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임상실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충분한 임상실습교육과 병원임상 프로그램 개발해야 한다고 하였다[5].

과거의 의료는 발생한 질병을 진단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으나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국민들은 본인의 건강한 삶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질병 뿐만 아니라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한다. 이런 이유로 보건-의료 종사자 수급이 증가되고 있기에 대학에서는 보건-의료계열학과의 신설 및 증설을 앞 다투어 주도하고 있다. 대학별 신설 및 증설된 많은 학생들은 이론으로 배운 것을 실무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위해 의료-보건계열학과들은 임상실무교육을 강화하고자 한다.

그러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임상실무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 후 인턴 및 전문트레이닝 과정을 거쳐야만 제대로 된 보건-의료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임상실무교육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파악하기 위해 여러 연구진에 의해 조사된 바 학생의 입장에서는 임상실습 시 객관적이고 공통된 실습교육프로그램의 부재, 병원간의 격차로 인한 최신기자재 교육 미비 등의 문제점을 이야기 하였고 교수자의 입장에서는 임상실습기관 확보의 어려움, 이론-실무 연계 시 학교와 병원간의 교육적 견해차 등을 문제점으로 인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 보건-의료 계열학과 재학생 중 임상실습교육을 경험한 학생을 대상으로 현 임상실습교육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하고 조사된 자료를 통해 학교병원의 유무에 따른 임상실습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보건-의료계열학생들의 질적 임상실습교육 수준을 높임으로서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및 대상

2011년 11월 24일~2012년 1월 12일까지 전국의 100개 대학 보건계열 5개 학과의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 1,00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총 990부(회수율 99%)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그러나 불충실하거나 무응답 항목이 있는 설문지 140부를 제외하고 최종 통계처리에 850부를 사용하였다.

2. 연구도구 및 자료정리

기존에 실시된 임상실습과 관련된 연구를 기초로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1997년 조경진 등에 의해 실시된 3년제 보건계열학과 현장실습의 효율적 방안 연구, 2004년 김선엽 등의 물리치료학 전공 학생들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조사, 2006년 강윤숙 등의 학교-병원 협력실습교육 프로그램이 간호학생의 임상실무수행능력과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연구 등을 바탕으로 임상실습 현황에 대한 내용과, 임상실습 환경 조사, 학생 만족도 조사를 위한 내용을 구성하였다. 설문지의 만족도 문항은 4점 척도로 '매우불만족' '대체로불만족' '대체로만족' '매우만족'으로 구성하였다.

3.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7.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임상실습 현황, 임상실습만족도 및 학교병원의 필요성 정도는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다양한 요인에 따른 임상실습만족도의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를 시행하였다. 학교병원 유무에 따른 임상실습만족도와 학교병원 필요성 정도의 차이는 t-test를 실시하

였으며, 대상자가 인지한 임상실습 만족도와 학교병원 필요성 정도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850명이었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850)

특성	구분	명	%
연령	①19~24세	645	75.9
	②25~30세	189	22.2
	③31세 이상	16	1.9
성별	①남	268	31.5
	②여	582	68.5
전공학과	①임상병리(학)과	187	22.0
	②간호(학)과	161	18.9
	③물리치료(학)과	180	21.2
	④방사선(학)과	163	19.2
	⑤작업치료(학)과	159	18.7
입학 정원수	①50명 이하	334	39.3
	②50~100명	350	41.2
	③100~150명	97	11.4
	④150~200명	19	2.2
	⑤200명 이상	50	5.9
학년	①2학년	130	15.3
	②3학년	484	56.9
	③4학년	236	27.8
종교	①불교	140	16.5
	②기독교	211	24.8
	③천주교	63	7.4
	④무교	430	50.6
	⑤기타	6	.7
대학생활 만족도	①매우 불만족	24	2.8
	②대체로 불만족	135	15.9
	③대체로 만족	602	70.8
	④매우 만족	89	10.5
대인관계	①매우 원활하지 않음	8	.9
	②대체로 원활하지 않음	29	3.4
	③대체로 원활	610	71.8
	④매우 원활	203	23.9

대상자의 연령은 19세부터 38세까지 분포하였는데 19~24세에 해당하는 학생이 75.9%로 가장 많았고, 평균연령은 23.4세였다. 여학생이 68.5%였고, 남학생은 31.5%였으며, 전공학과는 임상병리(학)과 22.0%, 물리치료(학)과 21.2%, 방사선(학)과 19.2%, 간호(학)과 18.9%, 작업치료(학)과 18.7%였다. 입학 정원수는 50~100명인 경우가 41.2%로 가장 많았고, 학년은 3학년이 56.9%이고 4학년이 27.8%, 2학년이 15.3%이었다. 종교는 무교가 50.6%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생활만족도는 81.3%가 만족해 하였고, 대인관계는 95.7%가 원활하다고 답하였다.

2. 대상자의 임상실습 현황

본 연구대상자가 시행하고 있는 전체 임상실습 시간은 300~650시간이 51.5%로 가장 많았고, 651~1,000시간이 25.4%, 1,000시간 초과가 16.5%의 순이었다<표 2>.

<표 2> 대상자의 임상실습 현황 (N=850)

특성	구분	명	%
전체 임상실습 시간	①300시간 미만	56	6.6
	②300~650시간	438	51.5
	③651~1,000시간	216	25.4
	④1,000시간 초과	140	16.5
임상실습 시기	①방학 중	461	54.2
	②학기 중	168	19.8
	③방학 + 학기 중	221	26.0
주요 임상실습 기관	①대학병원	470	55.3
	②종합병원	352	41.4
	③병원	20	2.4
	④의원	8	.9
임상실습 시 거주 장소	①자택	384	45.2
	②친구집	18	2.1
	③친척집	57	6.7
	④자취, 하숙	181	21.3
	⑤고시원, 독서실	164	19.3
	⑥기타	46	5.4

임상실습 시기는 방학 중인 경우가 54.2%로 가

장 많았고, 주요 임상실습 기관은 대학병원이 55.3%로 가장 많았으며, 임상실습을 시행하는 동안 거주하는 장소는 자택인 경우가 45.2%로 가장 많았다.

3. 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와 학교병원의 필요성 정도

연구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 평균은 2.94±.44 점이었으며 임상실습 만족도의 가장 높은 영역은 대인관계적 측면으로 3.04±.53점, 가장 낮은 영역은 교육의 질적 측면으로 2.86±.51점으로 나타났다. 학교병원의 필요성 정도의 평균은 3.17±.45점이었으며 현재의 임상실습환경에 대한 만족은 3.00±.62 점, 학교병원의 필요성은 3.34±.72점으로 나타났다 <표 3>.

<표 3> 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와 학교병원 필요성 정도 (N=850)

특성	항목	평균±표준편차
임상실습 만족도	전반적 측면	3.00±.49
	환경적 측면	2.87±.52
	교육의 질적 측면	2.86±.51
	대인관계적 측면	3.04±.53
	실습평가에 대한 측면	2.92±.59
학교병원의 필요성 정도	소계	2.94±.44
	현재 임상실습환경에 대한 만족	3.00±.62
	학교병원의 필요성	3.34±.72
	소계	3.17±.45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

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연구대상자의 성별 (t=2.434, p=.015), 전공학과(F=6.031, p=.000), 입학 정원수(F=8.835, p=.000), 대학생활 만족도 (F=30.253, p=.000) 및 대인관계(F=6.902, p=.000)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대상자의 연령($F=.535, p=.586$), 학년($F=.013, p=.987$) 및 종교($F=.795, p=.528$)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표 4>.

<표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의 차이 (N=850)

특성	구분	임상실습 만족도	
		평균±표준편차	t/F(p)
연령	①19~24세	2.93±.42	.535(.586)
	②25~30세	2.96±.48	
	③31세 이상	2.88±.46	
성별	①남	2.99±.50	2.434(.015)
	②여	2.91±.40	
전공학과	①임상병리(학)과	3.02±.45	6.031(.000)
	②간호(학)과	2.83±.42	
	③물리치료(학)과	2.91±.38	
	④방사선(학)과	3.01±.51	
	⑤작업치료(학)과	2.91±.39	
입학 정원수	①50명 이하	2.97±.41	8.835(.000)
	②50~100명	2.87±.43	
	③100~150명	3.12±.52	
	④150~200명	3.00±.28	
	⑤200명 이상	2.79±.36	
학년	①2학년	2.94±.36	.013(.987)
	②3학년	2.94±.46	
	③4학년	2.93±.44	
종교	①불교	2.91±.44	.795(.528)
	②기독교	2.96±.43	
	③천주교	2.97±.42	
	④무교	2.94±.43	
	⑤기타	2.70±.91	
대학생활 만족도	①매우 불만족	2.55±.68	30.253(.000)
	②대체로 불만족	2.78±.39	
	③대체로 만족	2.94±.37	
	④매우 만족	3.25±.63	
대인관계	①매우 원활하지 않음	2.69±.91	6.902(.000)
	②대체로 원활하지 않음	2.73±.48	
	③대체로 원활	2.92±.39	
	④매우 원활	3.04±.51	

5. 대상자의 전공별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

대상자의 전공별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는 전공에 대한 적성($p=.000$)과 지난 학기 학점($p=.019$)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전공 선택 동기($p=.495$)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표 5>.

<표 5> 대상자의 전공별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의 차이 (N=850)

특성	구분	임상실습 만족도	
		평균±표준편차	F(p)
전공 선택 동기	①취업을 고려	2.91±.45	.899(.495)
	②적성을 고려	2.98±.40	
	③고교성적을 고려	2.92±.40	
	④부모님이나 타인의 권유	2.99±.44	
	⑤봉사직을 갖기 위해	2.91±.55	
	⑥좋은 이미지 때문에	2.96±.39	
	⑦기타	2.87±.43	
전공에 대한 적성	①매우 불만족	2.54±.63	19.167(.000)
	②대체로 불만족	2.80±.43	
	③대체로 만족	2.91±.38	
	④매우 만족	3.14±.54	
지난 학기 학점	①D	2.81±.77	3.334(.019)
	②C	2.83±.52	
	③B	2.92±.42	
	④A	2.99±.42	

6. 대상자의 임상실습 현황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현황에 따른 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전체 임상실습 시간($p=.000$), 임상실습 시기($p=.005$) 및 주요 임상실습 기관($p=.04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임상실습 시 거주 장소($p=.117$)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표 6>.

<표 6> 대상자의 임상실습 현황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의 차이 (N=850)

특성	구분	임상실습 만족도	
		평균±표준편차	F(p)
전체 임상실습 시간	①300시간 미만	2.89±.58	8.850(.000)
	②300~650시간	3.01±.44	
	③651~1,000시간	2.84±.35	
	④1,000시간 초과	2.87±.44	
임상실습 시기	①방학 중	2.97±.45	5.384(.005)
	②학기 중	2.97±.46	
	③방학 + 학기 중	2.86±.38	
주요 임상실습 기관	①대학병원	2.95±.46	2.711(.044)
	②종합병원	2.94±.42	
	③병원	2.67±.22	
	④의원	2.97±.16	
임상실습 시 거주 장소	①자택	2.94±.45	1.768(.117)
	②친구집	3.11±.44	
	③친척집	2.97±.45	
	④자취, 하숙	2.98±.40	
	⑤고시원, 독서실	2.89±.45	
	⑥기타	2.86±.33	

7. 학교병원 유무에 따른 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

학교병원 유무에 따른 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하위 항목인 환경적 측면($t=2.326, p=.02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임상실습 만족도($t=.980, p=.327$), 하위 항목인 전반적 측면($t=.813, p=.416$), 교육의 질적 측면($t=-.054, p=.957$), 대인관계적 측면($t=1.779, p=.076$) 및 실습평가에 대한 측면($t=-.631, p=.528$)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7>.

8. 대상자가 인지한 임상실습만족도와 학교병원 필요성간의 상관관계

원 필요성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와 학교병원 필요성 정도($r=.204, p<.01$)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만족도와 학교병원 필요성 정도의 하위 항목인 현재의 임상실습 환경에 대한 만족($r=.435, p<.01$)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학교병원의 필요성($r=-.120, p<.01$)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학교병원의 필요성 정도와 임상실습 만족도의 하위 항목인 전반적 측면($r=.184, p<.01$), 환경적 측면($r=.149, p<.01$), 교육의 질적 측면($r=.217, p<.01$), 대인관계적 측면($r=.131, p<.01$) 및 실습평가에 대한 측면($r=.167, p<.01$)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학교병원 필요성 정도의 하위 항목과 임상실습 만족도의 하위항목 간의 관계에서 현재의 임상실습 환경에 대한 만족은 임상실습 만족도의 전반적 측면($r=.353, p<.01$), 환경적 측면($r=.373, p<.01$), 교육의 질적 측면($r=.413, p<.01$), 대인관계적 측면($r=.301, p<.01$) 및 실습평가에 대한 측면($r=.363, p<.01$)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병원의 필요성은 임상실습 만족도의 전반적 측면($r=-.073, p<.05$), 환경적 측면($r=-.135, p<.01$), 교육의 질적 측면($r=-.084, p<.05$), 대인관계적 측면($r=-.097, p<.01$) 및 실습평가에 대한 측면($r=-.105, p<.01$)간에는 부적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표 7> 학교병원 유무에 따른 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 (N=850)

특성	항목	학교병원의 존재		
		유(평균±표준편차)	무(평균±표준편차)	t(p)
임상실습 만족도		2.96±.43	2.93±.44	.980(.327)
	전반적 측면	3.01±.46	2.99±.50	.813(.416)
	환경적 측면	2.92±.51	2.84±.52	2.326(.020)
임상실습 만족도	교육의 질적 측면	2.86±.51	2.86±.51	-.054(.957)
	대인관계적 측면	3.08±.51	3.01±.54	1.779(.076)
	실습평가에 대한 측면	2.90±.57	2.93±.60	-.631(.528)

<표 8> 임상실습 만족도와 학교병원 필요성간의 상관관계 (N=850)

변수	학교병원의 필요성 정도		
	현재의 임상실습환경에 대한 만족	학교병원의 필요성	총 학교병원의 필요성 정도
전반적 측면	.353 (p<.01)	-.073 (p<.05)	.184 (p<.01)
환경적 측면	.373 (p<.01)	-.135 (p<.01)	.149 (p<.01)
임상실습 교육의 질적 측면	.413 (p<.01)	-.084 (p<.05)	.217 (p<.01)
만족도 대인관계적 측면	.301 (p<.01)	-.097 (p<.01)	.131 (p<.01)
실습평가에 대한 측면	.363 (p<.01)	-.105 (p<.01)	.167 (p<.01)
총 임상실습만족도	.435 (p<.01)	-.120 (p<.01)	.204 (p<.01)

IV. 고찰 및 결론

임상실습 교육은 대학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을 임상현장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기회를 통해 보건-의료계열의 전문가적 자질을 함양하고 실질적 기술과 지식을 넓히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교육 과정이다. 이런 점에서 보건-의료계열학과의 임상실습 교육은 단순히 학점을 이수하는 과정이 아니라 사람을 다루는 전문가가 되기 위한 준비과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12년 1월을 기준으로 100개의 보건-의료계열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 현황과 실습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임상실습 현황과 관련된 내용으로 5개 관련학과의 임상실습 기관은 300-650시간이 가장 많았으며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실습시간은 650-1,000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임상실습 시기는 방학 중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주요 실습기관은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실시된 최병욱[6], 김은하와 오윤희[7], 이미자 등 [8], 그리고 신성규와 임인철[9] 등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것은 보건-의료계열 학과가 증설됨에 따라 임상실습을 실시하는 학생들의 수는 증가하였지만 교육을 맡게 되는 실습기관은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임상실습과 관련된 환경적 측면에 대한 만족도는 학생 23.8%가 불만족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임상실습 교육의 질적 측면에 대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가장 높은 만족도는 대인 관계적 측면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2004년 김선엽 등의 연구[2]에서 나타난 물리치료 전공 학생들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조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기대하는 임상실습을 통한 교육적 능력 향상에 실습교육이 불만족스러움을 의미할 수 있다. 이것은 임상실습 교육의 내용이 전적으로 실습기관의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으며 상호교류나 실습을 위한 담당 선생님의 자질과 프로그램의 내용, 실습환경에 따라 교육의 질적 측면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충분히 반영한 임상 프로그램 개발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를 살펴 보았을 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입학 정원수에 따라 만족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대학생활의 만족도와 학점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았으며, 대인관계와 전공에 대한 적성에 만족할수록 임상실습 만족도 또한 높아지는 것을 통해 임상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특성과 임상실습 만족도가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새로운 방안으로 학교병원을 연계한 (활용한) 교육적 프로그램 개발을 생각해 볼 수 있

다. 기존의 관찰위주의 실습교육과 임상실습기관에만 의존한 실습교육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해결방안 중 하나로 학교병원을 활용한 실습교육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 학교병원의 경우 병원 이용자,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계열 학생들에게도 인지도가 높은 병원으로 다양한 환자와 좋은 시스템에 대한 실습교육을 경험 할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한 체계적이고 질 높은 실습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많은 연구에서 학교 또는 학과와 밀접하게 연계된 실습교육이 가져오는 효과에 대해 보여준다. 1989년 Scheetz의 연구[10]에서 실습지도자 활용모형을 적용한 간호학과 학생이 일반적인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에 비해 임상실무수행능력이 향상된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대학과 실습 기관간의 협력실습 교육 프로그램을 효과를 평가한 간호학생의 임상실무수행능력 향상과 같은 연구(Siegrist, 2004)[11]를 통해서 임상실습지의 협력적인 실습교육이 학생들의 실습 만족도뿐만 아니라 실질적 수행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보여 지듯이 보건-의료 계열의 임상실습교육의 목적 달성 여부는 학교와 실습기관간의 상호협력이 중요한 요인인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보건-의료계열 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와 학교병원의 필요성 정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학교병원이 보건-의료계열 대학생의 임상실습 환경 및 교육적 측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학교병원을 활용한 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보건-의료 계열학생들의 만족도와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는 학교병원의 활용 방안 및 효과에 대해 검증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이무상(2009), 바람직한 학생교육병원에 관한 연구, 교육과학기술부지정 고등교육정책연구소 보고서.
2. 김선엽, 김지혁, 송주영, 안덕현, 채정병(2004), 물리치료 전공 학생들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조사,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Vol.11(3):71-84.
3. 이성숙, 조명숙(2010), 임상실습이 치위생과 학생의 현장임상실습교육에 관한 교수효율성. 한국치위생학회지, Vol.10(5):403-409.
4. 조경진, 박영선, 이병기, 박지환, 정순희(1997), 3년제 보건계학과 현장실습의 효율적 운영방안, 보건과학 논문집, Vol.6(1):9-27.
5. 고봉연, 곽민철, 신현남(1999), 응급구조과 학생의 현장실습 수행활동 조사 연구, 한국응급구조학회 논문지, Vol.3(3):55-64.
6. 최병욱(1996), 일부 물리치료과 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대한 연구, 대한물리치료사학회지, Vol.3(3):339-350.
7. 김은하, 오윤희(2000), 3년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Vol.6(2):186-198.
8. 이미자 등(2004), 작업치료 교육에 있어서 임상실습교육 현황 분석, 대한작업치료학회지, Vol.12(2):105-117.
9. 신성규, 임인철(2010), 방사선과 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와 관련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집, Vol.10(9):276-284.
10. Scheetz, L. J.(1989),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 preceptorship programs and the development of clinical competence, J Nurs Educ. Vol.28(1):29-35.

11. Siegrist, B.D.(2004), Partnering with public health: a model for baccalureate nursing education, Fam Community Health, Vol.27(4);316-325.

접수일자 2012년 2월 20일

심사일자 2012년 2월 22일

게재확정일자 2012년 2월 29일